

# NEWS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 완화 광주도시공사, 내달 1~4일 접수

광주도시공사 행복주택 2개 단지(광주역, 서림마을)의 예비입주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입주인의 주거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사는 광주 북구에 광주역 및 서림마을 행복주택 2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소득요건을 기존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기간요건은 기존보다 최대 3년 완화한다. 또한, 기존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던 넓은 평형의 경우, 입주자 미달 시 청년과 고령자 등 다른 계층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급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광주역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와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며, 방문 접수와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공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cc.co.kr) 임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콜센터(062-225-2280), 광주역 관리사무소(062-526-9990), 서림마을 관리사무소(062-464-0561)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양동민 기자 yang00@

##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내달 9일까지...조세·부담금 산정

광주시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광주 전체 토지 38만9695필지 중 표준지 9938필지를 제외한 37만3961필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번 지가 열람은 자치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4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송기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신수정 시의장·5개 구청장 등 민·관·정 광주공동체는 2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 강기정 광주시장·5개 구청장 등 탄핵 인용 촉구 시민 결집 호소...내일 5·18민주광장 대규모 집회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장, 5개 구청장, 광주비상행동, 시민사회 원로 등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행동력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들은 2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에 따른 광주공동체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22일 5·18민주광장에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기로 했다.

또 천막 농성과 거리 선전전을 지속하고,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한 적극적 홍보도 나서기로 했다. 대학가, 노동계의 연

대 방안도 논의됐다. 강기정 시장은 “국민들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현재의 선고 지연으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광주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었고, 이번에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선화 동구의장은 단식 투쟁을 했던 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문 의장은 “우리의 목표는 탄핵이 완수

되는 것이었다. 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단식을 중단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역사의 흐름은 반드시 정의로운 방향으로 갈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독려했다. 이어 “시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차원의 행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텔레미 챌린지를 통해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3명씩 지명하는 챌린지를 제안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가족을 잃

은 어머니들과 당시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이들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오월어머니집과 (사)5·18민중항쟁기동태극대동지회는 이날 오후 3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비상계엄으로 45년 전 계엄군에 의한 학살이 저질러진 광주는 무서운 기억에 몸서리쳤다”며 “민주주의는 내 동맹이여졌고, 경제는 망가졌으며, 국력은 추락하는 등 온 국민이 100일 넘게 치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용성 기자 yu1404@gwangnam.co.kr

## 18년 만의 연금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험료를 13·소득대체율 43% 구조개혁은 특우서 연내 처리

‘보험료를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4면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는 돈’인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내년부터 해마다 0.5%p(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 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법안도 통과시켰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 개혁으로서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영광서 한국전쟁 희생자 첫 신원확인 김영록 지사 “진실 회복 전환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발굴된 유해 가운데 지난 19일 영광지역에서 첫 신원 확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번 희생자 신원 확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20년 만에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유해 신원의 첫 확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영광 흥농읍 등지에서 경찰과 공무원, 군인, 교사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157명 중 한 분이다. 희생자는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록 지사는 75년의 가나긴 세월을 지나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희생자분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



며, 그리움으로 가슴 태운 유가족께 온 마음을 다스려 해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신원 확인은 단순한 유해 발굴을 넘어,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진실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추모사업을 내실있게 펼쳐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생자의 존엄을 되살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사업을 통해 화해와 치유의 길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남, 당신에 이상형!

#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